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

*마치다 타카시

1. 머리말
2.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의 유형
3. 제주도 풍속 교화의 이념과 정책
4. 조선시대 교화정책의 구조적 특징
5. 맺음말

* 창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객원교수

[국문요약]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에 대한 육지 출신 지식인들의 인식과 풍속교화 정책의 진행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첫째, 조선시대에 폐습으로서 교화 대상이 되었던 풍속은 음사, 상례와 장례 방식, 대처승, 근친혼, 중혼, 재혼, 골육 매매, 여성의 신체 노출 등이다. 이 항목들은 성리학적 예속 관념으로 비추어 그 인간상을 벗어나는 풍속이었다.

둘째, 조선 지식인에 의한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에는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며, 그것은 육지와의 비교를 통한 일방적인 이질성과 성리학적 교화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파악되는 것이었다. 그 풍속 인식의 유형은 한문적 글쓰기의 규격을 통해 계승되고 재생산되며, 조선의 지식사회에 있어서 고착화된 제주도 인식을 만들어냈다.

셋째,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해 풍속교화정책에는 토착지배층이 크게 개입하였으며, 문화·언어적으로 중간적·이중적 성격을 가진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육지와 제주도 간의 갈등이 조절되었다.

그리고 이들 풍속교화 정책은 목사나 관관의 이름과 함께 일정한 모티브를 가진 전설로서 전해졌다. 또 전승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습합되면서 풍속교화와 무속이 대립적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육지 풍속의 침투와 이에 대한 저항이 구도화되면서 집단기억을 이루었던 점은 조선시대 풍속 교화가 제주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한 현상이었는지를 말해준다.

1. 머리말

린 취안중(林泉忠)은 오키나와(沖縄)·타이완(臺灣)·홍콩(香港)의 각 지역에 대해 ‘변경(邊境)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설정하면서 그 특징을 역사적 주변성, 귀속의 변경, 중심과의 정체성에 관한 갈등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¹⁾ 변경에서는 ‘중심’의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과, ‘중심’에서 차별화되는 재래적 생활 방식 사이에서 대립과 수용, 저항과 타협, 습합과 절충 등 다양한 문화 변동의 과정을 갖게 된다. ‘변경’이 갖는 이 문화 정치의 구도는 한반도 육지와 제주도 사이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중심-주변 관계에도 해당된다.

제주도는 한국에 있어서 문화적인 ‘예외’ 또는 ‘특수’한 공간으로서 담론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해고도(絶海孤島), 이국적인 정서, ‘육지’와 다른 독특한 문화, 탐라의 역사,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 등 여러 이미지를 내포한 ‘제주도 특수론’은 ‘중심’과 ‘주변’ 사이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특수론은 조선시대에 “풍속이 별나다(風殊俗別)”고²⁾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전부터 정착되었으며, 식민지기에는 ‘탈육지화 오리엔탈리즘’³⁾을 통해 ‘유교화’된 조선(육지)과 대조되는 동시에 내지(일본열도)와의 친근성을 부각시키는 담론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제 안으로 재편된 제주도에서 제주도 특수론은 ‘미개한 고유 폐습’을 배제하는 정치적 운동 또는 육지에서 찾을 수 없는 ‘민속의 보고’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 담론으로 역할 하였다. 제주도 특수론은 현재까지 제주도를 대한민국 내부의 문화적 ‘예외 공간’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제주도 특수론의 중요한 배경으로

1) 林泉忠, 『「邊境東アジア」の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沖縄・台湾・香港』, 東京: 明石書店, 2005, 9-36쪽.

2) 李荇 외,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3) 식민지기 ‘탈육지화의 오리엔탈리즘’, 해방 후의 ‘폐습추방운동’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는 학위논문(마치다 타카시, 「〈민속〉과 〈폐습〉 사이: 제주도의 폐습론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에서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서 조선시대에 형성된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의 유형에 주목한다.

우선 조선시대에 기록되었던 제주도 풍속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 삶의 모습이 육지 지식인의 언어·문화적 프레임 속에서 유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풍속 교화 정책을 정리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탐라가 한반도 통치권에 편입된 것은 1105년, 고려에 복속되고 탐라군(耽羅郡)으로 개편되면서부터였다.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왕조는 조선시대 초기에 단계적으로 기존 제도를 해체하여 목사를 정점으로 하는 지역 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그 과정은 조선 초기로부터 중기, 후기에 이르러 세습적·지연적인 토착세력 쇠퇴와 목사를 비롯한 관권 강화라는 구도로 파악된다.⁴⁾ 이러한 정치 과정에 따라 제주도 풍속도 교화되어 갔고, “본토와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⁵⁾ 실제로 조선 초기에 삼읍에 향교가 설치된 후, 유생들이 증가하였고 향시(鄕試) 설치 등으로 성리학적 교화 정책이 성과를 보인 점, 그리고 정표(旌表) 정책이 시행되어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정표하였던 점으로 보아 육지와 동일한 교양과 도덕이 제주도에 점차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하지만 조선시대 제주도가 육지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한 문화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1520년 8월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이배된 김정(金淨, 1486~1520)은 우선 제주도의 환경과 풍속에 대해 육지와 차이와 이질감, 당혹과 불쾌함을 서술하였다.

이 고을 풍토는 또 하나의 유별한 곳으로 하나하나 매우 달라서 까딱하면 탄식하고 놀라기만 하나 모두가 볼 만한 것이 없다. (중략) 더욱이 구름과 안개가 항상

4) 金東柱, 『朝鮮時代 濟州島の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1, 제주 : 제주도사연구회, 1991, 64쪽; 金眞英, 『조선초기 ‘濟州島’에 대한 인식과 정책』, 『韓國史論』 48권, 서울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5) 金眞英, 위의 논문, 56쪽.

6) 金眞英, 위의 논문, 92~101쪽.

음침하게 덮어가려 맑게 갠 날이 적고, 거센 바람과 굵은비가 시도 때도 없이 몰아 닥쳐 매우 습하며 답답하다.⁷⁾

조선시대 귀양되거나 파견된 중앙 관인에게 제주도 풍토는 “사사수이(事事殊異)”이며 바로 당혹과 놀라움이 가득한 이문화(異文化) 체험이었다. 김정은 이 글 다른 부분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토인(土人)”의 반응도 묘사했다. 뱀을 두려워하는 제주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죽이는 김정의 행동에 대해 “다른 지방 사람이어서 이같이 능히 하는 것이리라”라는 말을 기록하여 제주도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토인(異土人)”인 것도 의식한다.⁸⁾

이 시대 제주도와 육지의 이문화 접촉은 서로 큰 이질감을 가질 만한 일이었으나, 그 차이를 말하는 글쓰기(literacy)는 당연히 육지의 한학적 교양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화와 자연에 대한 충격은 결국 “모두가 볼 만한 것이 없다(一無可觀)”, “참으로 우스운 일(甚可笑)”이라는 평가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과 관련된 글쓰기를 둘러싼 기본적인 권력 구도를 말해준다.

16세기에 제주도를 관찰한 김정에게 제주도는 이국(異國)이며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는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他者)였다. 그렇다면 조선(육지) 문화권으로 편입, 즉 풍속의 육지화가 뜻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고찰할 여지가 있을 듯하다. 즉 제도와 권력 구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와 관습화된 사고의 변화에는 더욱 많은 시간과 행정적 자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도의 풍속과 그 교화 과정에 대해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7) 金淨, 『濟州風土錄』: 此邑風土 別是一區 事事殊異 動可吁駭 一無可觀. (중략) 加以雲霧恒陰鬱少開霽. 盲風怪雨. 發作無時. 蒸濕沸鬱.

8) 金淨, 위의 책: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即呪酒 不敢驅殺 吾則遠見必殺 土人始而大駭 久而慣見 以爲彼異土人 能如是耳. 終不吾蛇之當殺 惑甚可笑.

2. 고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의 유형

조선시대 제주도에 관한 기록은 목사를 비롯한 관인과 유배자 등 육지에서 온 지식인에 의한 저작물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 풍속에 주목한 것을 열거하면 김정희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⁹⁾ 관찬지지(官撰地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¹⁰⁾ 임제(林悌, 1549~1587)의 『남명소승(南溟小乘)』,¹¹⁾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南槎錄)』,¹²⁾ 이건(李建, 1614~1662)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¹³⁾ 이원진(李元鎭, 1594~?)의 『탐라지(耽羅志)』,¹⁴⁾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南宦博物)』,¹⁵⁾ 관찬읍지인 『제주읍지(濟州邑誌)』(1780년대),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1793년 경),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정의읍지(旌義邑誌)』, 『대정읍지(大靜郡邑誌)』(1896년 경)¹⁶⁾ 등이 존재한다.¹⁷⁾

- 9) 1520년(中宗 14) 8월에 제주도로 이배되었던 김정이 1521년(中宗 15) 10월에 賜死될 때 까지 제주도에서 경험한 기후, 풍속, 민정 등을 서술한 책. 유배 중에 제주도 물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써 보냈던 글이다. 1552년에 간행된 『冲庵先生集』 권4에 수록되었다. 김일우, 「『제주풍토록』 해제」,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11-13쪽.
- 10) 1530년(中宗 25) 李荇·尹殷輔·申公濟·洪彦弼·李思鈞 등이 『東國輿地勝覽』을 55권 25책으로 증수, 편찬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11) 조선중기 시인인 임제가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林晉)을 뵈러 나주를 출발했던 1577년(선조 10) 11월 3일부터 다음해 2월에 제주도를 떠나 3월 3일에 집으로 돌아간 때까지 대략 4개월간을 일기체로 저술한 기행문. 원문은 필사본이며 1958년에 간행된 『백호선생문집(白湖先生文集)』의 별책 부록에 수록되었다. 홍기표, 「『남명소승』 해제」,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33-36쪽.
- 12) 1669년(현종 10)경 간행(추정). 1601년(선조 34) 김운절·소덕유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될 것을 염려하던 제주도민을 위로하기 위해 안무어사로 파견된 김상헌이 1601년 8월부터 6개월간을 일기체 형태로 서술한 기행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13) 선조(宣祖)의 제7남 인성군(仁城君) 셋째아들 이건이 광해군(光海君) 복위모임에 가담한 부친 인성군의 뒤에 연좌되어 1628년(인조 6)부터 8년간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지내면서 지은 기행문. 1712년(숙종 38)에 간행되었다. 김일우, 「『제주풍토기』 해제」,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163-165쪽.
- 14) 1653년 간행.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진이 편찬한 사찬지지(私撰地誌)로, 김정희의 『제주풍토록』과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산정을 가하여 집대성한 책. 고창석, 「『탐라지』 해제」, 김찬홍 외 역, 『역주 탐라지』, 서울 : 푸른역사, 2002, 267-281쪽.
- 15) 이형상이 尹斗緒의 권유에 응해 1702년부터 1703년까지 제주목사로 부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찬술한 박물지적 지지. 1704년에 간행되었다. 이상규, 「해제 : 『남환박물』, 300여 년 먼지를 털고 세상 밖으로 나오다」,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서울 : 푸른역사, 2009, 5-17쪽;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서울 : 한국예술종합학교, 2010, 24쪽.
- 16) 『濟州邑誌』와 『濟州大靜旌義邑誌』는 모두 18세기 말 正祖年間에 작성된 官撰邑誌로 알려져 있고,

이들 풍속 기록 중에는 매우 정확하게 실정을 파악한 것도 있고, 한정된 정보와 오해로 인하여 제주도 실정을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제주도 풍속을 평가하는 서사의 성격과 풍속이 담론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표 1〉 제주도 풍속 관련 기행문·사찬읍지의 시기와 성격

문헌	유형	저자	내도이유	체류시기(년)	체류기간	간행
濟州風土錄	기행문·일기	김정	유배	1520~1521	약 14개월	○
南冥小乘	기행문·일기	임제	여행	1577~1578	약 4개월	
南槎錄	기행문·일기	김헌상	안무어사	1601~1602	약 6개월	○
濟州風土記	기행문·일기	이건	유배	1628~1635	약 8년	○
耽羅志	사찬읍지	이원진	목사	1651~1653	약 14개월	○
南宦博物	사찬읍지	이형상	목사	1702~1703	약 12개월	○

〈표 2〉 제주도 관련 지·읍지의 풍속조

문헌	유형	작성시기(년)	풍 속 관 련 항 목	간행
新增東國輿地勝覽	관찬지	1530	권38 全羅道 濟州牧 風俗조, 大靜縣·旌義縣의 風俗조는 “與濟州同”으로 생략.	○
濟州邑誌	관찬읍지	1780~1789	濟州邑誌·大靜縣誌·旌義縣誌에 각각 풍속조.	
濟州大靜旌義邑誌	관찬읍지	1793 경	濟州牧에 〈風俗〉조가 있고, 大靜縣·旌義縣의 〈風俗〉조는 “與濟州同”으로 생략.	
濟州郡邑誌	관찬읍지	1896 경	〈風俗〉조	
旌義邑誌	관찬읍지	1896 경	〈風俗〉조	
大靜郡邑誌	관찬읍지	1896 경	〈風俗〉조	

이 기록들은 내도(來島)의 시기와 배경, 저자의 입장, 체류기간, 책의 성격과 간행 여부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표 1·2〉 참조) 그 차이는 서술 내용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우선 집필시기가 조선 전기에 속하는 김정의 『제주풍토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제주도 풍속에 관한 고전(古典)으로 후대 기록들이

『濟州郡邑誌』, 『旌義邑誌』, 『大靜郡邑誌』는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3읍(1牧2縣)이 1899년(光武 3)의 全國邑誌上送令에 따라 편찬된 읍지들이다. 楊普景, 『濟州島邑誌 解題』, 韓國學文獻研究所, 『韓國地理志叢書 邑誌6 濟州道』,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3, 3~9쪽.

17) 그 외에도 尹著東의 『增補耽羅誌』(1765), 李增의 『南槎日錄』(1681년경), 金允植의 『續陰晴史』(1887~1921), 金錫翼의 『耽羅紀年』(1918) 등이 알려져 있다.

이를 참조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두 가지 계통으로 구분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포맷을 이어 읍지 형식으로 저술된 『탐라지』, 그리고 관찬읍지로 이어지는 계통이 있다. 다른 계통은 『제주풍토록』과 유사하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 풍속을 일인칭으로 묘사한 『남명소승』, 『남사록』, 『제주풍토기』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저술자의 입장으로는 공(公)과 사(私), 서술의 유형으로는 삼인칭과 일인칭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남환박물』은 읍지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저자가 목사로서 자신의 행동과 입장을 일인칭으로 밝힌 것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 기록들은 성격이 다양하지만 일정 기간 제주도에 살며 그 생활 모습을 관찰했던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제주도 풍속에 주목하여 언급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각 서술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 같은 풍속에 대한 각각의 시대와 입장에 따른 인식이나 평가를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에 있어서 육지가 제주도 풍속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에 관한 구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서술 방식이 일정한 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탐라지』 그리고 관찬읍지들로 이어지는 계통에는 몇 가지 동일한 항목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각 지지·읍지 10개 자료에 나오는 항목의 언급 빈도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지지·읍지에 나타난 제주도 풍속의 언급 빈도

모든 자료	俗癡儉(10), 人多壽考(10), 地瘠民貧(10), 女多男少(10)
8개 이상	俚語難盡(9), 田頭起墳(9), 茅茨不編(8), 杵歌聲苦(8)
5개 이상	不用網罟(7), 聚石築垣(6), 尙淫祀(5), 不貴京職(5)
2개 이상	山無惡獸(4), 照里戲(4), 天氣常暖(3), 風殊俗別卒悍民囂(3), 俗獠地遠(3), 多用燒酒(2), 絮綿不產(2)
1개	『남환박물』: 婚禮拜門, 踏田八陽, 女役甚重, 家無竈埃, 有砧無杵, 市無買賣, 無寺無僧無尼, 村無盜賊 『제주읍지』 대정현지: 野牧成羣 『제주대정정의읍지』: 不重生男, 女不知載, 牛馬作屯種穀踏田, 冠用藤籬, 衣必狗皮, 不事紡績織竹採藿

이와 같은 유형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유형화된 풍속 묘사의 패턴이 19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의 이미지가 한문적 글쓰기(literacy)의 규격을 통해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 그렇게 유형화된 항목들 중에서 시대와 문서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취사선택과 추가가 행해진 점 또한 알 수 있다. 『남한박물』에서 주목한 사항에는 저자 이형상의 풍속교화에 대한 각별한 의도가 반영되었고, 각 군현별로 행정적 목적에 따라 작성된 관찬읍지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으며 행정과는 무관한 사항(俗獠地遠 등)이 사라진 한편, 생산과 관련된 사항(野牧成羣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는 풍속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서술했는지에 따라서 그 프레임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위의 풍속 인식이 조선왕조의 중앙정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1781년 정조(正祖)가 제주도 세 고을에 내린 윤음(綸音)에 풍속에 대한 언급이 보이며 그 중에 앞에서 보았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풍속 묘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곳의 백성들은 돌을 모아서 담장을 쌓고 띠풀을 엮어 집을 만들며, 풍속이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양(禮讓)의 이름다움이 있으며, 질병(疾病)이 적어 수고(壽考)하는 이가 많으니, 또한 해도(海島) 가운데 하나의 도회(都會)이다.¹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글쓰기와 담론의 재생산을 통해 일반화되고 정착되고 계승되어 있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 묘사의 담론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학적 내려티브의 개입이다. 풍속 기록자들은 관리, 유배자, 여행자 등 서로 입장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인식을 가진 지식인이며 한학적 글쓰기의 맥락으로 풍속을 묘사했다. 그 서술에서는 당연히 유학사상이

18) 『正祖實錄』 권11, 정조 5년 6월 26일 정유 기사: 厥民聚石爲垣, 編茅爲屋, 俗癡儉有禮讓, 少疾病多壽考, 抑海島之一都會也.

명확한 기준으로 전제되었으며 변경인 제주도의 풍속은 왕화·교화의 대상으로서 주변화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술은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유지하고 미숙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

둘째, 기준이 되는 이상(理想)이 명확하기 때문에 항상 육지의 향촌질서를 정상·표준으로 삼고, 그것과 비교를 통해 이상하고 예외적인 풍속이 가시화되고 강조된다. ‘有○’, ‘無○’, ‘○多’, ‘○小’와 같이 유무(有無)와 다소(多少)의 비교로써 이루어지는 글쓰기는 반전(反轉)으로 육지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나, 그것이 의식되지는 않는다.

셋째, 거센 자연환경에다가 관습과 언어가 다른 토착관리와 도민들에게 둘러싸이는 고독감은 특히 유배자인 경우에 더 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왕이 사는 서울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의 정은 ‘망경(望京)의 시학’으로서 감상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서는 변방의 풍토와 생활 모습을 더욱 거칠고 어리석은 것으로 표상하는 심리에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현지의 산업과 동식물 등 생태환경, 생활 상태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이질적인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신선한 놀라움과 호기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 가난한 백성의 생활에 대한 경세(經世)의 시각, 위정자로서 목양, 감귤, 미역 등 제주도의 주요 산물이자 진상품인 토산(土産)과 관련된 관심도 표현되고 있다.

다섯째, 한학적 글쓰기의 특징으로 선학(先學)의 업적, 즉 선행하는 지지(地誌)나 기행을 세세하게 참조하며 그것을 갱신하여가는 방식으로 글이 이루어진다. 이는 육지 지식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여러 차례의 참조와 인용을 통해 유형화되고 고정화되어 간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고정된 이미지는 식민지기 일본인의 인식으로도 이어졌으며 많은 해석과 의미부여를 거쳐서 현대까지 제주도 이미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교화의 이념과 정책

1) 조선 전기의 풍속 교화 정책 : 상제와 대처승

전술한 바와 같이 김진영은 삼읍의 향교 설치와 향시의 실시, 그리고 정표 정책으로 인하여 15세기에 제주도에서 풍속교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본토와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¹⁹⁾

그 교화정책의 진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제(喪制)’에 관한 풍속 개량과 ‘대처승(帶妻僧)’에 대한 조치였으며 이 두 관행이 상당히 중요시된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1418년 세종(世宗)이 즉위했을 때 교서를 내려 효자·절부(節婦)·의부(義夫)·순손(順孫)을 찾아 실적(實迹)으로 아뢰라고 하였다니 그 명단에 제주의 전 주부(主簿)인 문방귀(文邦貴)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의 효행은 다음과 같다.

그 곳 풍속이 3년상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상제(喪制)는 다 가례(家禮)를 따름으로써 효도의 기풍을 세우니, 제주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무덤을 지킨 자가 3인이요, 3년상을 행한 자가 10여 인이나 되었다.²⁰⁾

문방귀는 고득중(高得宗)의 매부(妹夫)이자²¹⁾ 탐라 지배층 출신의 ‘재경관리(在京官吏)’이며 1413년 고득중 등 2명과 함께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삼년상을 지낸 사람으로 도안무사(都按撫使)가 보고했던 사람이다.²²⁾ 이 기사로 제주도에 그 당시까지는 가례가 침투되지 않았고 도착 지배층의 중앙 진출 과정과 함께 상제를 비롯한 육지의 예속이 제주도에 유입된 과정을 알

19) 金眞英, 앞의 논문, 56쪽.

20) 『世宗實錄』 권7, 세종 2년 1월 21일 경신 기사: 州俗不行三年喪, 歲丙戌父沒, 守墳三年, 喪制悉遵家禮, 以樹孝風, 鄉人效之, 守墳者三人, 行喪三年者十餘人.

21) 『世宗實錄』 권30, 세종 7년 11월 23일 무오 기사.

22)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6월 11일 무오 기사.

수 있다. 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15세기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기건(奇虔, ?~1460)이 행했던 교화의 기록이 있다.

판추(判樞) 기건(奇虔)이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되었는데, 제주의 옛 풍속은 부모를 장사 지내지 않고 부모가 죽으면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공(公)은 부임(赴任)하기 전에 먼저 주리(州吏)에게 명하여 관곽(棺槨)을 갖추어 염장(殮葬)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그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공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화(敎化)가 크게 행해졌다.²³⁾

기건 목사는 백성들에게 시체를 묻는 법을 가르쳐주고 산이나 들에 흩어진 백골들을 모두 고이 매장해 주었던 인물로 제주도 설화에도 등장한다.²⁴⁾ 그러므로 『목민심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상례를 지내며 무덤을 마련하는 것이 교화의 초기단계에서 그만큼 상징적으로 중요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풍속 기록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발머리를 파고 무덤을 만드는 풍속(田頭起墳)’에 대한 언급은 그 문맥으로 보아 위의 상제 및 매장에 관한 풍속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상사를 마친 지 백일이면 복을 벗고 발머리를 조금 파고 무덤을 만든다. 간혹 삼년상을 행하는 자도 있다”고²⁵⁾ 삼년상에 언급되었으며, 또한 불교식 장례를 하지 않는다는 서술을 통해,²⁶⁾ 시신 처리에 대한 유식 의례의 침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풍속(田頭起墳)은 근대 이후에는 ‘경작지 무덤’ 문제로 토지이용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묘지로의 정리 과정에서 문제시되었으나 조선시대 서술에서는 오히려 ‘상’을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속 차원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 기술은 조선 전기에 삼년상 정려와 이건 목사의 고충치산(古

23)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제3조 「牧民」: 奇判樞虔爲濟州牧使。舊俗不葬。其親死。輒委之溝壑。

公未上任。先敕州吏。備棺槨。敎以斂葬。州之葬其親。自公始。敎化大行。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9-1: 제주도 복제주군 편, 1980, 206-208쪽.

25) 『新增東國輿地勝覽』: 田頭起墳 治喪百日而除略掘田頭以起墳間或有行三年喪者。

26) 『新增東國輿地勝覽』: 不用地理卜筮又不用淨浮法。

塚治山)에 관한 전설과 호응한다.

대처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세종대에 찰방(察訪)으로서 제주도에 파견된 김위민(金爲民)이 제주도의 폐단에 대해 올린 장계의 여러 항목 중에도 ‘대처승(帶妻僧)’이 오르고 있다.

『육전(六典)』에 중이 아내를 가지는 것은 법으로 정한 죄가 있어 『육전』에서 금하는 바이온데, 제주의 중들은 공공연하게 아내를 가지며 사사(寺社)를 자기 집으로 삼고,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 자기 처자 양육을 영위하면서 관청의 부역은 별로 없이 앉아서 배부르고 따뜻이 누리고 지내니, 육지의 중들이 또한 모두 소문을 듣고 깊은 물에 고기떼 모이듯이 몰려들어 그 모양을 따라 하되, 관에서는 예사로 알아서 또한 금하지 아니하여 실로 폐단스러운 풍속이 되었사오니, 청하건대 제주의 대처승을 일체로 조사하여 모조리 목자(牧子)로 만들거나 혹은 군대에 보충시키거나 할 것.²⁷⁾

또 이 ‘폐습’은 1466년(세조 12)에 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제주도 세고을 중의 자식(僧人所生)들에 대해 호패어사(號牌御史)가 모조리 천인(賤人)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하자, 그 소생들이 왕에게 원통함을 상소하였다. 그들의 아비는 “다른 중의 예와 달라서 군적(軍籍)에 이름이 실리어 각각 그 구실(役)에 이바지하고” 있었다.²⁸⁾ 임금(世祖)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제주의 풍속은 중이 군사가 되어 아내를 얻고 자식을 길러 평민(平民)과 다름이 없으니, 양녀(良女)와 간통한 소생은 천인을 만들지 말게 하며, 금후로는 법대로 출가(出家)하여 아내를 얻거나 자식을 기르지 아니하고 계율(戒律)을 깨끗이 지키는 중은 군역(軍役)을 면하게 하라.²⁹⁾

27) 『世宗實錄』 36권 세종9년 6월 10일 정묘 기사 : 僧徒娶妻, 律有定罪, 而『六典』所禁, 濟州僧徒, 公然娶妻, 以寺社爲家, 役其弟子, 營其妻子之養, 略無公家之役, 坐享飽煖, 陸地僧徒亦皆聞風, 如魚之聚淵, 靡然俱效. 州官視爲常事, 亦莫之禁, 實爲弊風. 請濟州對妻僧徒, 一皆推刷, 定爲牧子, 或補軍額.

28)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1월 11일 甲寅 기사 : 然臣等之父, 非他僧人之例, 載名軍籍, 各供其役.

29) 『世祖實錄』 권38, 위의 기사 : 濟州俗, 僧人爲軍, 對妻育子, 與平民無異. 其奸良女所生, 勿令從賤. 今後如法出家, 不對妻育子, 戒淨僧人, 免軍役.

대처승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 기록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주풍토록』에서는 “이 지방의 중은 다 처를 길러 마을 안에 살고 있어 원악함이 목석과 같다”고 서술했고³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중이 모두 절 옆에 집을 짓고 처자를 기른다”고 기록됐다.³¹⁾ 『남사록』에는 “남자 중은 있으나 비구니는 없다”며 “중들은 다 방을 만들어 그 곁에 아내와 자식을 기르고 유사시에는 군대에 나간다”고 적었다.³²⁾ 그리고 남자가 나이 5, 6세가 되면 군역에 종사케 하고 나중에 머리를 깎고서도 복무시키기 때문에 군사들 가운데 머리 깎은 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후 맥락을 보건데, ‘중의 혼인’ 문제는 단순히 불교의 계율과 법을 어기는 일이라기보다 제주도 사회에서 중의 위상을 반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승속을 묻지 않는다(不問僧俗)”, 즉 제주도의 중이 상대적으로 세속화되고 일반 사람들에 밀착된 존재였고 그만큼 행정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중이 됨으로써 노역을 기피하는 상황은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2) 조선 후기의 풍속 교화 정책 : 목사 이형상의 개량책

16~17세기에 이루어진 목사의 행정권 확립, ‘오현(五賢)’³³⁾으로 대표되는 중앙관리와 유배인의 교화활동, 지방 유림의 성립 등으로 조선시대 후기 제주도에는 한정적인 육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18세기 초의 제주목사 이형상의 치적(治績)은 재래관습의 개변이란 차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1702년(숙종 28)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중앙권력에 의한 ‘폐습추방’의 상징적 사례로 상기된다. 그 사건이란 ‘이형상이 절 오백 당 오백을 파괴했다’고 전해지는 사건이다.

30) 『濟州風土錄』: 而土之僧徒 皆畜妻村居 頑如木石.

31) 『新增東國輿地勝覽』: 僧皆作家寺傍以畜妻子.

32) 『南槎錄』: “有僧無尼”, “僧輩皆作室 其傍以畜妻子 有事赴軍云”.

33) 김정, 김상헌, 정온(鄭蘊), 송시열(宋時烈), 송인수(宋麟壽)의 다섯 명을 말한다. 1892년(고종 29) 제주 유림들의 건의에 의해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던 오현(五賢)을 기리기 위해 오현단(五賢壇)으로 배향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오현단」.

제주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이형상의 경력으로는 학문을 장려하며 주민을 교화하여 예법을 바로 세우고, 향촌질서를 확립하는 청렴한 목민관의 면목이 보인다. 각지의 목사와 부윤 등을 역임하면서 경주부윤 재임 시(1699년)에도 “부내의 사찰과 음사(淫祠)를 훼손하고 학궁(學宮)을 세워 유학을 장려”하는 등 각 부임지에서 성리학적 이념을 실제적 행동으로 관철하는 위정자였다.³⁴⁾ 동시에 그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유학 사조를 선도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³⁵⁾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등에서 지리학적·박물학적 관심이 나타난 것처럼 실학적 시점도 갖는 인물이었다. 중앙관리와 토착세력 간의 일정한 타협과 균형 위에 성립되었을 제주도 행정에 있어서 이 엄격하고 유능한 목사의 부임은 일종의 긴장을 발생시킨 사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형상의 목사로서의 특징은 “본주 목사가 되어 음사를 헐어 크게 풍속을 바꾸었다”³⁶⁾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풍속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었다. 특히 ‘삼년상의 장려’, ‘향교 설립을 통한 학문의 보급’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까지 풍속교화에 비해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남환박물』에 의하면 이형상이 ‘폐습’으로 여기며 개입한 풍속의 구체적인 사례는 여성의 신체 노출, 부모·처자의 매매, 사찰과 중, 음사, 동성혼(同姓婚), 축첩과 재혼 등으로 그는 이 풍속들을 없애고 금했다고 한다.

여성의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치마가 없어서 몸뚱이와 볼기짝을 드러낸 모습이 참담하여 차마 볼 수가 없다며,³⁷⁾ “매번 서리와 백성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불가한 이유를 말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알게 하였다. 그런 뒤에 영을 내려 금지”하였다.³⁸⁾ 그러나 이형상 자신도 “어찌 옛날로 돌아가지 않음을 알라?”며,³⁹⁾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34) 『瓶窩集』 「해제」, 한국고전종합DB.

35) 이상규, 「해제 : 《남환박물》, 300여 년 먼지를 털고 세상 밖으로 나오다」, 이상규·오창명 역주, 앞의 책, 7쪽.

36) 金錫翼, 『耽羅紀年』, 1918; 『耽羅文獻集』, 제주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429쪽 : 李衡祥 號瓶窩 永川人 肅宗壬午 刺本州 毀撤淫祠 丕變風俗.

37) 李衡祥, 『南宦博物』; 이상규·오창명 역주, 앞의 책, 107쪽 : 且無裾但以麻索繫腰以數尺佈布性縫 係枚索之前面惟掩其陰而已脫衣脫裳露身露臀慘不忍見.

38) 李衡祥, 앞의 책, 108쪽 : 每對吏民言其不可之由知其有羞恥然後下令禁止.

39) 李衡祥, 앞의 책, 108쪽 : 安知其不如舊也.

이형상은 부모·처자의 매매와 관련하여 백성들의 가난함과 부역의 부담 때문에 생겨난 풍속이라며, 세 읍에서 보고받은 실태를 “부모를 판 자가 5명, 아내와 자식을 판 자가 8명, 자신이 머슴살이로 된 자가 19명, 동생을 판 자가 26명, 모두 합쳐서 58명”이라고 기록하였다.⁴⁰⁾ 그는 장계를 올려 이에 대해 진휼(賑恤)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금령을 세워 골육의 매매를 금지하기를 요청했다. 임금이 이를 윤허하여 이미 판 자를 속환(贖還)하고 금령을 세웠으니 백성들이 모두 복치고 춤추면서 환희했다고 한다.⁴¹⁾

사찰과 중에 대해서는 “중은 있되 비구니는 없다(有僧無尼)”라는 과거의 기술을 인용하여 본인의 시책으로 절을 없앴으니 “이제 사찰이나 불상, 중, 비구니도 없다(今無寺刹佛像僧尼)”고 불교 근절에 성공한 것으로 기술했다.⁴²⁾

혼인 풍속에 대해서는 『지지(地誌)』⁴³⁾를 참조하여 “같은 성과 가까운 친족과는 간택하지 않는다. 또 교배례(交拜禮)는 행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 차례에 걸쳐 깨닫도록 일러주었다”⁴⁴⁾며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원칙의 차이를 표현했다. 여기에는 제주도 마을의 생태적·경제적 여건과 연결된 가족 관습과, 혼인을 예속(禮俗)의 실천으로 여기는 사상적 태도의 날카로운 대립이 드러난다. 이 풍속에 대한 교화는 뒤에 언급할 ‘음사 혁파’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 토착 관리들이 모여서 이형상에게 말하는 내용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섬의 풍속이 어리석고 성화(聖化)에 젖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근족(近族)이 서로 혼인하고, 혼인할 때 교배의 예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혼인 때 여자 쪽에 찬(饌)을 보내고, 여자의 몸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처 있는 자가 처를 취하고, 남편

40) 李衡祥, 앞의 책, 111쪽 : 三邑使之抄報則賣父母五名鬻妻子八名雇當身十九名賣同生二十六名都合五十八名.

41) 李衡祥, 앞의 책, 112쪽.

42) 李衡祥, 앞의 책, 113-114쪽.

43) 유흥원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를 이른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전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44) 李衡祥, 앞의 책, 104-105쪽 : 不擇同姓及近族又不行交拜禮余累次曉諭.

이 있는 자가 개부(改夫)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비로소 서로 금하겠습시다.⁴⁵⁾

여기서는 동성·근족혼의 금지, 교배례의 실시와 함께 남성의 중혼(重婚), 여성의 이혼과 재혼인 개부도 금한다고 토착세력들이 스스로 선언하는 형식으로 ‘교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 형식은 중앙과 제주도, 목사와 토착세력 사이에서 풍속의 개변이 지나는 정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다음 차례에 언급할 ‘음사 혁파’ 사건 역시 그렇게 진행되었다.

제주도 풍속에 언급한 기록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과 혐오감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음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며 제주도의 ‘음사’ 성행은 이들 기록을 통해 이미 일반화된 일이었다. 『제주풍토록』에서는 심하게 사귀(邪鬼)를 숭상한다며 특히 “남무가 많다(男巫甚多)”는 점을 강조하고 “삼백 여소(三百餘所)”에 이르는 “음사(淫祠)” 즉 신당의 존재를 기록했다.⁴⁶⁾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또 귀덕(歸德), 김녕(金寧), 애월포(涯月浦) 등지에서 지내는 연등(燃燈)굿에 언급했고, “봄가을로 남녀가 광양당(廣壤堂)과 차귀당(遮歸堂)에 무리로 모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한다”며⁴⁷⁾ 광양당과 차귀당을 제주도 ‘음사’의 상징적 존재로서 언급했다.

『남사록』에는 『제주풍토록』의 남무가 많다는 기술을 참조하면서 그 점을 직접 무당에게 물었더니 “제주도 풍속이 예로부터 여자 무당이 없고 무릇 귀신을 제사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남자무당이 한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저자 김상헌은 그것을 “틀림없이 신라 화랑의 유풍”으로 해석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음사’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⁴⁹⁾

『제주풍토기』에서도 신당에 대한 설명과 굿을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

45) 李衡祥, 앞의 책, 118쪽: 島俗貿々不肅 聖化同姓及近族之相婚々姻時交拜之不行男婚之送僕女體之不掩及有妻而娶妻有夫而改夫者最爲可者自今爲始互相禁止.

46) 『濟州風土錄』: 酷崇祀鬼 男巫甚多 嚇人災禍 取財如土 名曰朔望七七[初七, 十七, 二十七] 必殺爲牲爲淫祠 淫祠幾至三百餘所 歲增月加妖訛屢騰 人病甚畏服藥 謂爲鬼怒至死不悟.

47) 『新增東國輿地勝覽』: 又於春秋男女羣聚廣壤堂遮歸堂具酒肉祭神.

48) 『南槎錄』: 土俗自古無女巫 凡祀鬼禱神之事 皆男巫爲之云 此必新羅花郎之遺風.

49) 『南槎錄』: 此俗今猶不革.

사했으나 저자는 “이들은 비록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지는 하나 또한 심히 괴이한 것이다”며⁵⁰⁾ 다른 기록들보다 거리를 두고 냉정히 관찰했다. ‘음사’는 조선시대 기록자들의 시선에 비친 ‘어리석고 야만스러운’ 제주도 풍속 중에서도 각별했다. 그 이유는 ‘음사’가 다른 습속들과 달리, 성리학의 사상과 예측에 직접 대립되는 습속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음사’의 혁파는 풍속 교화 사업에 있어서 중심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음사’가 해로운 이유에 대해 “그릇되고 요사스러운 술법”⁵¹⁾ 등 신앙 자체에 대한 부정과 동시에 백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강조하는 담론이나 의약(醫藥)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⁵²⁾ 『남사록』에서는 복약(服藥)과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村民)은 약을 써본 자가 없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들(城中之人)은 약을 얻으면 복용한다며 이 풍속에 계층분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⁵³⁾ 또 위독한 자일 경우에 귀신에게 빌어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자를 효성(孝誠)으로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풍(蠻風)이 아직도 변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⁵⁴⁾

이와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1702년 12월에 일어난 음사혁명 사건은 동시대 지식인인 임창택(林昌澤, 1682~1723)이나 이익(李瀾, 1681~1763) 등이 언급할 정도로 지방의 음사에 대한 강력한 정책 집행 사례로 알려졌다.⁵⁵⁾

이 사건은 이형상 자신이 펴낸 『탐라순력도』(1702년)에도 ‘건포배은(巾浦拜恩)’이라고 제목을 지은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1). 이 그림은 상방

50) 『濟州風土記』：此等事。雖是理外之事。亦甚怪駭。

51) 『濟州風土錄』：妖詭屢騰。

52) 『南槎錄』：“嚇人災禍 取財如土”，“若如巫鬼者 嚇人餅酒 亦利之歸耳”，“人疾病 甚畏服藥”，『濟州風土錄』：疾病甚畏服藥。

53) 『南槎錄』：且村民則曾未有以藥試之者矣 城中之人 疾病得藥則服之。

54) 『南槎錄』：村民臨老病得病 彌留危苦者 其子女輒虔誠祈禱 若不可癒 禱鬼速令就死 母爲久苦也 如此者咸稱孝誠云 此蓋蠻風之未盡變者。

55) 林昌澤은 개성에서 음사를 없애는 것을 청하는 『請毀淫祠書』에서 이형상의 “음사 12개소를 없앴다”는 시책을 전례로 삼았다. 『松岳集』 卷之二：近日李衡祥爲濟州。濟在洋海中。取爲荒僻。俗喜鬼尤甚。民朴頑難治。遂毀淫祠十二所。初民驚恐。意必有大禍殃。卒無事。俗遂清安。其民至今日追思不能忘。是皆正氣之所以不泯。而後代之所瞻仰者也；李瀾, 『星湖僊說』 제4권, 『萬物門』, 『城隍廟』：島民尤尚淫祠如濟州無村無祠守者厚利故官稅亦重李參議衡祥悉焚之民皆驚恐其還皆謂必溺及其利涉莫不疑恠。

(남쪽)에 한라산, 하방(북쪽)에 제주성내가 그려져 있고 이 사건에 관련된 세 장면이 공간적으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 즉 그림 왼쪽 밑, 바다로 불거진 포구(“建入浦”로 써넣음)에서 사람들이 아래쪽(북쪽)을 향해 엎드려 배례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내의 목관아로 보이는 시설에서 주색 관복을 입고 오른쪽에 앉는 당상 인물에게 왼쪽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 성 밖에 배치된 각 마을에서 “신당(神堂)”이라고 써넣은 총 11개 건물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다. 당상 사람은 이형상 목사 자신으로 추정되며, 배례를 하는 무리는 지방 관인들로 추정된다.



〈그림 1〉『탐라순력도』 중 「건포배은」
(李衡祥, 『耽羅巡歷圖』, 『耽羅巡歷圖·南宜博物(고전자료총서1)』,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이 세 장면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개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일을 한 그림 안에 그려낸 것이다. 그 과정은 이 그림 밑에 기술된 설명과 『탐라순력도』의 ‘서(序)’, 그리고 『남한박물』 중의 기술로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우선 1702년 12월 20일 “향소(鄉所)의 유생(儒生)·무사(武士)·서리 및 각 면의 면임(面任), 각 마을의 이임(里任)들이 정결한 곳에 서로 모여, 임금 계신 북쪽을 향하여 사배(四拜)”하였다.⁵⁶⁾ 그리고 “그 뒤에 800여 명이 와서 말하기를...”로 이어졌다. 이 일련의 행동은 ‘나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이형상이 장계를 올려서 실시했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형상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죽은 말을 반만 징수하니 목자들이 보전할 수 있고, 추복(搯鰓) 값을 지급하니 갯가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고, 모곡(耗穀)을 관수(官需, 관청에서 필요한 것)로 지급하여 주니 민역(民役)이 관대하여지고, 퇴역(退役)한 배를 획급(劃給)하여주니 거역(巨役)이 제거되고, 오래 근무하면 조용(調用)하니 벼슬길이 통하게 되고, 뒤를 잇도록 등록하여 주니 끊어지는 제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릇 이 여섯 가지 혜택은 이미 지급하여 뼈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처자를 관 것도 속환하고 또 금제를 세웠으니 이제부터 섬사람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있게 되었습니다.⁵⁷⁾

부역과 공세(貢稅)의 일부를 감면하는 이 ‘혜택’의 내용은 이형상이 쓴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과⁵⁸⁾ 대부분 일치하며 이 내용에 앞에서 언급한 혼례 풍속의 개량에 대한 토착 관리들의 선언이 이어진다. 풍속의 개변은 이와 같

56) 李衡祥, 앞의 책, 118쪽 : 前月二十日鄉所儒生武士吏胥及各面々任相會於宇慶潔地北向四拜後八百餘人來告.

57) 李衡祥, 앞의 책, 118쪽 : 死馬徵半則牧子可保搯鰓給償則浦民可生耗穀給官則民役可寬退紅劃給則巨役可除久勤調用則仕路可通繼後給案則絕祀可續民此六 惠已極銘骨而贖還賣鬻且立禁制自此島民可有父子.

58) 『濟州民瘼狀』, 『瓶窩集』 卷之十七, 한국고전종합DB.

은 정치·경제적 혜택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음사를 헐고 치워버려 그 은혜를 머금고 그 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⁵⁹⁾며 민전(民田)을 약탈한 문권(文券)을 모두 목사에게 바치기도 했다.

〈그림 1-4〉에 그려진 신당 파괴는 그 다음날인 12월 21일에 행해졌다.

다음 날에는 각가지 세 읍에 있는 신당(神堂) 129개소를 소각(燒却)하고, 또 사가(私家)에서 신에 기도하는 물건이나 길가 총림(叢林)에 있는 것과 무격배(巫覡輩)의 신옷(神衣)과 신철(神鐵) 일체를 다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나무뿌리를 파고 불상을 헐어 없애니 지금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고 삼 읍의 수령들이 연이어 첩보하였습니다.⁶⁰⁾

또 그 다음날인 22일에 이형상은 음사의 당사자인 ‘무격배’들과 면회하였다. 즉 남무(男巫) 수백 명이 와서 음사의 배경이 ‘관용(官用)의 면포를 전적으로 무격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며 이 때문에 곳에 뛰어든 것이라고 변명한다.⁶¹⁾ 그리고 이제 음사가 없어졌으니 무안(巫案)에서 이름을 제거하여 범민(凡民)이 되겠다고 한다.

3일에 걸쳐 전개된 이 사건에 대해 이형상은 ‘건포배은’ 그림 밑에 써넣은 글에는 “임오 12월 20일 향품문무(鄉品文武) 300여 명이 신당 129개소를 불태우고 사찰 5개소를 파괴하며 무격 285명을 귀농시켰다”고⁶²⁾ 기록하였다. 『탐라순력도』 ‘서’에서는 “서로 맹서하여 온 고을의 음사와 아울러 불상을 모두 불태웠으니, 이제 무격 두 글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더욱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⁶³⁾ 스스로 그 성과를 강조했다.

59) 李衡祥, 앞의 책, 119쪽 : 若其淫祀各々毀撤以表其含 恩戀德.

60) 李衡祥, 앞의 책, 119쪽 : 翌日各自燒火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及私家禱神之物路傍叢林之處巫覡輩神衣神鐵一併燒燼甚至於掘木根毀佛像今無一物留在三邑守令連續牒報.

61) 李衡祥, 앞의 책, 119쪽 : 官用綿布全責於巫覡赤手空拳無可備納互相投巫展轉成俗.

62) 李衡祥, 『耽羅巡歷圖』; 『耽羅巡歷圖·南宮博物(고전자료총서1)』,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壬午十二月二十日/鄉品文武上下并三百餘人/燒火神堂一百二十九處/破毀寺刹五處/巫覡歸農二百八十五名.

이렇게 살펴보면 ‘이형상의 음사 혁파’로 기억되는 이 역사적 사건이 갖는 연극적 장치(spectacle)의 성격을 알게 된다. 온 섬의 관인 수백 명이 모여서 목사와 조정에 복종을 맹세하고 하루 만에 삼읍의 모든 신당과 사찰이 없어지는 전개에서는 그 모든 장면이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데먼스트레이션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주도한 또 하나의 존재가 부각된다. 그것이 바로 ‘중삼’의 시선을 내면화한 현지 사람들이며 육지 권력과 제주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위치하는 이중적이고 중간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존재는 임금에게 배례하면서 신당 파괴를 실행했던 ‘향품문무’ 즉 현지 관인과 토착지배세력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혁명’ 과정에 개재하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앞에서 본 조선시대 풍속기록에서 음사의 폐해는 유교식 제의 밖에서 사사로운 제를 지내는 점과 의약을 믿지 않게 하는 점, 그리고 무격들이 백성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점이였다. 『남환박물』에서는 소를 잡아먹는 일, 면포를 약탈하는 일, 위전(位田)이라 하여 논밭을 약탈하는 일⁶⁴⁾ 등 경제적 착취를 더욱 강조했다. 음사혁명 과정에서도 ‘문권’을 바치고 면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이 정책의 수행이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관과 민, 목사와 토착세력 간의 갈등을 내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형상의 음사혁파는 중과 사찰을 없앤 일 외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형상이 무고를 당하여 파직된 후⁶⁵⁾ 그는 후임자가 “무배(巫輩)로 하여금 속히 신당을 만들게 하고”, “또 무녀안을 만들고 전과 같이 면포를 거두니 무당들은 재력을 내어 이미 폐하였던 신당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 탄식했다.⁶⁶⁾

63) 李衡祥, 『南宦博物』; 이상규·오창명 역주, 앞의 책, 117쪽: 君恩至有巾浦之拜又欲酬報 聖澤互相約誓園境淫祠竝多佛像而燒燼今無巫覡二字之尤不可以無言也.

64) 李衡祥, 앞의 책, 117쪽.

65) 『肅宗實錄』 권7, 숙종 29년 3월 5일 경술 기사.

66) 李衡祥, 앞의 책, 121쪽: “又令巫輩速作神堂”, “且作巫女案仍前收布巫輩各出財力已□□□堂云堪可寒心”.

4. 조선시대 교화정책의 구조적 특징

조선 전기 제주도는 왕화와 교화가 미치기 어려운 특구(特區)였고 자연환경으로 인한 특수한 경제구조와 육지와는 다른 문화와 풍속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⁶⁷⁾ 1434년 조정은 제주도에서 백성들이 마소를 도살(盜殺)하는 일을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도독을 색출하여 육지로 압송했다. 그 결과 수백 명이 대량으로 이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표류, 기아 등으로 죽는 자가 많이 발생하자 세종이 그 사람들을 제주도로 돌려보내는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지금 이를 생각하니, 제주는 멀리 바다 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예의도 알지 못하고, 또 안정된 마음도 없어 남 몰래 산림(山林)에 숨어서 소나 말을 도둑질해서 잡아먹기 보통이니, 이것은 더러운 옛 풍속에 물 들은 것이라, 어찌 육지에서 예의를 아는 백성들과 같이 해서 법으로 아프게 다스리겠는가.⁶⁸⁾

이 글에는 조선 전기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육지와 제주도는 ‘예의(禮義)를 아는 백성’과 ‘예의를 알지 못한 백성’으로 구별되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선 전기의 제주도 풍속에 대한 태도를 대표하는 타자성으로, 그 풍속이 어리석고 야만스럽더라도 예외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진영은 조선 초기에 조선 지식인의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문서와 시에 나타난 평가를 통해 논했다.⁶⁹⁾ “성주(聖主)의 신기로운 덕화(德化)와 어리석은 백성을 설복시키는 정책에 따라 풍속이 전과 달리 아름다워지고,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⁷⁰⁾고

67) 金眞英, 앞의 논문, 70쪽.

68) 『世宗實錄』 권72, 세종 18년 6월 20일 을묘 기사: 我今思之, 濟州遼居海島, 其民不知禮義, 且無恒心, 潛匿山林, 盜殺牛馬, 習以爲常, 是乃舊染汚俗, 豈可同於陸地禮義之民, 而痛繩以法乎.

69) 金眞英, 앞의 논문, 64-71쪽.

70) 高得宗, 『弘化閣記』; 『교육제주』 23호, 1973, 131-136쪽: 及我本朝益被聖主神明之化 懷柔之德

하는 고득종의 『홍화각기(弘化閣記)』(1435) 등이 그것이다. 즉 향교의 설치, 향시의 실시, 정표 정책 등의 교화정책, 그리고 삼년상과 매장·무덤의 장려 등을 실시하여 유학의 보급을 통해 ‘육지화’가 이루어졌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육지화’는 제주도 주민의 생활 차원까지 미쳤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후기의 기록들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풍속이 별난 섬’이었기 때문이다. 단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의 풍속개선 정책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형상 목사로 대표되는 조선후기의 정책은 계몽적인 ‘교화’의 차원을 넘어 직접적으로 풍속의 내용에 개입하는 의지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이미 제주도 백성을 ‘예의를 알지 못한 백성’으로 예외시하는 것보다 육지의 기준을 과감하게 적용하여 다스리는 의지이다.

이러한 교화정책의 강도와 성격 차이는 조선전기부터 진행되었던 목사가 주도하는 행정권의 확립이 진행되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제주도 풍속의 ‘타자성’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풍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경의 특이한 타자’로부터 ‘내부의 우매한 백성’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풍속의 개량은 내부의 문제가 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정치적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형상의 풍속 교화에서도 그 강제성은 철저히 은폐되고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 스스로 옛 풍속을 버리고, 왕과 조정의 덕과 은혜에 감사하다’는 구도로 연출되었다. 풍속의 개선이 현지인 스스로가 외부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의도를 짐작하고, ‘앞질러 하는 자기규제’로 이루어진 것이다.⁷¹⁾

風移俗易 民安土着久矣.

- 71) “先回りの自己規制.” 모모세 하비키(百瀬響)는 일본 문명개화기의 풍속개량 항목을 세 가지로, 첫째 외국인에게 비판을 받아서 금지한 것, 둘째, 외국인에게 비난당할 것을 예상하여 금지한 것, 그리고 셋째, 일본인 스스로의 문화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가 서구인이 비서구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문화의 시선, 셋째가 전통 사회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풍속을 평가하는 윤리적 시선이라고 한다면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개량 논리는 둘째에 해당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모세는 이 자기규제 양상을 “서양인에 앞질러 하는 자기규제”라고 불렀다. 百瀬響, 『文明開化 失われた風俗』, 東京: 吉川弘文館, 2008, 35쪽.

또한 풍속 개량·통제에 있어서 목사가 내리는 행정적 조치가 제주도 각 마을의 생활로 미치는 영향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도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관리가 지방장관인 수령으로 파견되는 조선의 현실 속에서 제주도 내 토착세력의 도움 없이는 수령들이 제대로 통치하기가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상황에 대해서다.⁷²⁾ 그 상황을 관원의 인원과 임기, 그리고 언어적 상황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김동전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로 파견되는 관원이 대략 10명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⁷³⁾ 19세기 현종 대에는 18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보이나 감목관 등 일부 관직에 토착 관리인 향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⁷⁴⁾ 또 교수, 검률, 심약 등 전문직은 지방 통치에 관여하는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통치에 관여하는 관원은 목사를 비롯하여 판관, 현감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므로 목사가 내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오직 토착 관리들이며 현지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현지관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시대 제주목사를 역임한 인물 총 286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대략 1년 10개월 정도이다.⁷⁵⁾ 그 짧은 기간 내에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력을 행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토착 관리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제주도 통치 구조에서 제주성내와 마을 간에는 큰 정치적 중간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수령은 “제주지방의 地理·風俗을 모르고 있어서 토관세력의 도움은 불가피하였고, 대신에 토관세력의 不法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되었다.⁷⁶⁾

72) 金東桢, 앞의 논문, 57쪽. 김동전은 이 글을 조선 전기의 상황으로 말하고 있으나 필자는 조선 후기에도 그 구도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본다.

73) 金東桢, 앞의 논문.

74)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신분 구조 연구 시론」, 『제주도연구』 6, 1989, 237-246쪽;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 경주 김씨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2, 제주 : 제주도사연구회, 1992, 51-66쪽.

75) 제주 목사 재임 기간 중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경우가 28명으로 9.7%, 1년을 넘기지 못한 목사가 65명으로 22%이었다. 재임 중에 사망한 사람이 21명으로 7%, 재임 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거나 파직된 경우가 68명으로 23%를 차지한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 목사』).

76) 金東桢, 앞의 논문, 60쪽.

또 제주도 통치의 중간영역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어를 들어야 하겠다. 목사가 행정조치를 행사하기에는 현지 정보의 파악과 의사소통의 문제는 매우 큰 장애이었다. 그 소통 장애에는 구술과 문서의 양면이 존재한다.

육지에서 와서 기록을 남긴 많은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중앙 관원과 현지 주민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며 서로 의사소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풍속 기록들에서 말하는 “이어난삽(俚語難澁)”이 그것이며, 부분의 기록자들이 “촌백성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우며, 말하는 억양이 앞은 높고 뒤는 낮다”⁷⁷⁾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그 불쾌함을 “가늘고 높아 마치 침(針)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출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더니 이미 오래 됴에 스스로 능히 통하게 되니 마치 어린이가 만어(蠻語)를 해득하는 것”이라며 언어의 적응 과정 또한 발견하고 있다.⁷⁸⁾

제주도와 육지 간의 언어 차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모두가 기술했던 “촌민이어난삽(村民俚語難澁)”의 “촌민”이다. 조선시대 기록물에서 제주도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에는 토인(土人), 도민(島民) 등이 있지만 “촌민”은 촌백성 즉 성내(城內)에 사는 사람과 구분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 호칭이다.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이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기록했다.

처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비비새가 떠드는 소리와 같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다 이러하고 관인(官人) 및 성중에 있는 자도 이따금 사투리를 섞기는 하나 대략 난삽(難澁)하지 않아 호남(湖南) 사람과 한 가지이다.]⁷⁹⁾

77) 『耽羅志』: 村民俚語難澁先高後倭.

78) 金淨, 『濟州風土錄』: 土人語音 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居此既久 自能通文 右云兒童解蠻語者此也.

79) 金尙憲,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75-76쪽: 初聞人語 如鳩舌啾啾 不可辨也[村中之人 其語音皆如此 官人及在城中者 往往雖澁 與湖南之人一般].

이 서술은 제주도 일반인과 육지의 언어적 중개자로서 토착관인 및 성내 사람이 있음을 확인시키는 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은 제주도 사투리를 섞어 말하기는 하나, 호남 사람이 말하는 것을 연상시킬 정도로 육지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집단이 조선 후기에 현성되어 있었다. 이 상황은 언어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중간적 존재가 필수적인 것을 뜻하며 언어의 차이가 큰 만큼 중간 역할이 차지하는 영역도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자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에 글자를 아는 자가 매우 적다는 사정은 김정이 “지방 사람인 생원 김양필 외에는 글 아는 자가 매우 적다”⁸⁰⁾고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모든 행정 조치가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글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관의 최소 조건이지만 이것도 제주도 행정이 중간세력(글을 아는 현지인)의 개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세종 대에 김위민이 올린 장계에 ‘향리’가 “禮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고을 안의 일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까닭을 물었을 때 사람들이 답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에 의하면 1406~1409년에 안무사로 파견된 조원(趙原)이 일시적 편의를 위해 양민(良民) 가운데 글자를 아는 사람 30여 명을 뽑아서 전리(典吏)라 명칭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맡겼고 이후 그 전리들이 잡역에 종사하였다고 한다.⁸¹⁾

이와 같은 사정으로 조선왕조의 제주도 통치는 기술적·물리적 측면에서 간접통치 또는 이중지배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이루어진 풍속교화가 “본토와 동일한 문화권”을 이루었다는 주장은 제주도 일반민의 ‘육지화’라기보다 이 중간적 세력의 성장과 세습을 통한 정착, 그리고 육지의 생활방식·사고방식의 (지배층에 대한)부분적 침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육지와 제주도 간의 이중적 존재는 탐라국의 지배층으로 유래하는 구 토관세력뿐 아니라 그 외에 벼슬을 통해 육지에 정착한 재경사족(在京

80) 金淨, 『濟州風土錄』, 9쪽 : 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絶少.

81) 『世宗實錄』 권36, 세종 9년 6월, 정묘 기사.

士族)들과 조선 전기에 건너와 현지 사족이 된 육지 출신 씨족집단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재경사족은 서울에서 벼슬살이하고 있는 제주도 지배세력이었던 성주·왕자 출신의 인사들이며 이들은 제주도의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재경관리(在京官吏)로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앙정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통로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제주도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이 재경사족에게 여러 차례 자문(諮問)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⁸²⁾

육지에 시조를 둔 씨족들의 제주도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1930년대에 마스다 이치지가 중문면 내 마을들의 성씨 구조를 족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다.⁸³⁾ 마스다에 의하면 제주도를 본관으로 하는 고·양·부 씨를 제외한 성씨의 입도(入島) 시기의 상한은 약 500년 전이며 대부분이 제주성내, 일부가 성산과 대정에 상륙하였다. 그곳에서 여러 차례의 이주를 거쳐 현재 마을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즉 마스다는 1930년대 중문면에서 족보를 보유했던 육지 출신 씨족들의 많은 부분이 태종대(1400~1418) 삼읍체제 확립 이후에 입도하였으며 그들이 경작지를 찾아서 중산간 지대에 모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스다의 지리학적 분석의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조선전기부터 제주도에서 점진적인 인구구성 변화와 정착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육지에서 유입한 사람들의 정착 과정이 제주도의 육지화와 그 확산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은 추측할 수 있다.⁸⁴⁾

제주도와 육지 간의 점경지대는 이와 같이 ‘육지화 된 제주인’과 ‘현지화 된 육지인’의 언어·문화적 이중성에 있다. 이 세력은 제주도와 육지 간 완충지대로서 양자 간의 갈등을 조절하며 자신들의 정치·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82) 金眞英, 앞의 논문, 80-81쪽.

83) 榊田一二, 『濟州島の集落』, 『榊田一二地理學論文集』, 東京: 弘詢社, 1976.

84) 육지에서 입도하여 조선 전기에 성장한 세력 가운데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표선면 의귀리를 중심으로 목장 경영과 공마(貢馬)를 통해 감목관까지 올랐던 경주 김씨를 들 수 있다.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경주 김씨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2집, 1992, 51-66쪽.

위해 양면적 대응을 하는 존재이다. 제주도 풍속교화에 있어서 ‘수령=중앙권력’과 ‘민중=제주도 백성’이라는 이항대립 구도보다도 토착세력과 수령, 토착세력과 일반농민들 간의 갈등과 타협, 수용이라는 3자 구도로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⁸⁵⁾

5. 맺음말

여기까지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과 교화 정책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조선시대에 폐습으로서 교화 대상이 되었던 풍속은 음사, 상례와 장례 방식, 대처승, 근친혼, 중혼, 재혼, 골육 매매, 여성의 신체 노출 등이다. 이 항목들은 성리학적 예속 관념으로 비추어 그 인간상을 벗어나는 풍속이었다.

둘째, 조선 지식인에 의한 제주도 풍속에 대한 인식에는 일정한 유형이 존재하며, 그것은 육지와 비교를 통한 일방적인 이질성과 성리학적 교화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파악되는 것이었다. 그 풍속 인식의 유형은 한문적 글쓰기의 규격을 통해 계승되고 재생산되며, 조선의 지식사회에 있어서 고착화된 제주도 인식을 만들어냈다.

셋째,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해 풍속교화정책에는 토착지배층이 크게 개입하였으며, 문화·언어적으로 중간적·이중적 성격을 가진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육지와 제주도 간의 갈등이 조절되었다.

그리고 이들 풍속교화정책은 목사나 관관의 이름과 함께 일정한 모티브를 가진 전설로서 전해졌다. 또 전승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습합되면서 풍속교화와 무속이 대립적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육지 풍속의 침투와 이에 대한 저항이 구도화되면서 집단기억을 이루었던 점은 조선시대 풍속 교화가 제주

85) 金眞英, 앞의 논문, 78-79쪽.

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한 현상이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 조선시대 유교식 문화의 침투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전체 양상과 비교를 통해 비로소 제주도가 놓여 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부분을 고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욱 미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의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도 남은 과제로서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 풍속 인식과 교화 정책이 근·현대의 제주도 인식이나 지방 정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원진의 『탐라지』는 식민지기 일본인 통치자에게도 기본 정보로서 공유되었으며, 해방 후 제주도에 대한 지방 정책에 있어서도 당시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맞추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를테면 1960~1970년대에 실시되었던 폐습추방운동이나 미신타파운동에서 폐습과 미신이 “고착화된 고유 폐습”으로서 담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또한 제주도 자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삼다’와 ‘삼무’ 등의 표어로서, 육지와 제주도를 차별화시키는 담론에게 근거를 부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육지와 제주도 문화에는 차이점이 많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일정한 사상적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의미 부여하는 과정에는 현실의 생활 관습의 다양성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성이 개재된다. 그 정치성을 밝히는 일은 육지와 제주도 간의 문화를 둘러싼 갈등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제주도, 조선시대, 풍속, 교화 정책, 음사, 폐습, 이형상

■ 참고문헌

- 高得宗, 『弘化閣記』, 『교육제주』 23호, 제주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3.
- 金尙憲,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金淨, 『濟州風土錄』, 『冲庵先生集』 卷之四, 한국고전종합DB.
- 李衡祥, 『南宜博物』, 『耽羅巡歷圖·南宜博物(고전자료총서1)』,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이 상규·오창명 역주, 『남한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서울 : 푸른역사, 2009.
- _____, 『瓶窩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_____, 『耽羅巡歷圖』, 『耽羅巡歷圖·南宜博物(고전자료총서1)』,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林昌澤, 『請毀淫祠書』, 『松岳集』 卷之二, 한국고전종합DB.
- 李健, 『濟州風土記』, 『葵窓遺稿』 卷之十一, 한국고전종합DB.
- 李元鎮, 『耽羅志』,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 서울 : 푸른역사, 2002.
- 李荇 외,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종합DB.
- 林悌, 『南溟小乘』, 『濟州古記文集』, 제주 : 제주문화원, 2007.
- 丁若鏞, 『牧民心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口碑文學大系』 9-1 : 제주도 북제주군 편,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_____, 『韓國口碑文學大系』 9-3 : 제주도 서귀포, 남제주군 편,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金東栓,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1, 제주 : 제주도사연구회, 1991.
- 金眞英, 『조선초기 濟州島에 대한 인식과 정책』, 『韓國史論』 48권, 서울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 마치다 타카시, 『<민속>과 <폐습> 사이 : 제주도의 폐습론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민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서울 : 한국예술종합학교, 2010.
- 주영하, 『제주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 『濟州島研究』 37, 제주학회, 2012.
-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 경주 김씨가와 호구단지를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2집, 제주 : 제주도사연구회, 1992.
- 榎田一二, 『濟州島の集落』, 『榎田一二地理学論文集』, 東京 : 弘詢社, 1976.
- 百瀬響, 『文明開化 失われた風俗』, 東京 : 吉川弘文館, 2008.
- 林泉忠, 『「邊境東アジア」の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沖繩・台灣・香港』, 東京 : 明石書店, 2005.

Ideology and Policy on Customs of Jeju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MACHIDA TAKASHI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examine how th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accounted for the customs of Jeju Island and attempted to improve it.

First, Joseon Dynasty intellectuals termed the superstitions, funeral rites, married priests, incest, polygamy, remarriage, buying or selling one's family members, the physical exposure of women, and other practices found on Jeju Island as evil customs. Following Confucian ideology, these customs were prohibited.

Second, the Joseon intellectuals assessed Jeju customs in a different way, through a one-sided comparison with a mainland Confucian frame. These assessments were standardized and reproduced in Chinese literacy, and they created the Joseon image of Jeju Island as a fixed culture.

Thir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indigenous rulers of Jeju Island intervened heavily in policies to improve customs, and they sought balance between the mainland and Jeju while maintaining their own vested rights as an intermediate zone of cultural and linguistic significance.

These policies of improvement of customs were inherited as legends with certain motifs, accompanied by the names of the regional ministers. In such legends, customs improvement policies and shamanism were characterized in

a confrontational way, and the permeation of the customs of mainland and resistance to them were absorbed into collective memory. This indicates the meaning of the customs improvement policy for the people of Jeju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Jeju, Joseon Dynasty, customs, customs improvement policy, Superstition, Evil customs, Lee Hyeong Sang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17일 / 논문수정일: 2018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